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강 경 자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A Study in the Perception of the Harmony of Coloration in Traditional Korean Dress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On the Tone in Tone Coloration-

Kyung-Ja K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0. 11. 2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harmony of colors of the traditional Korean skirt and jacket. 3 colors of jacket and 6 colors of skirt were combined by 4 kind of color's tone. The Korean women college students and the American women college student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harmony of colors. It could be supposed that the different evaluation were caused by their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en colors were combined with four tone(vivid, light, dull and dark), American students evaluated the same colors of red skirt and red jacket, green skirt and green jacket as harmonized coloration. But Korean students thought they were not harmonized.

The yellow colors of jacket and the similar colors of red skirt were evaluated as harmonized by both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They evaluated the green jacket and the red skirt of contrast color as harmonized.

The different tone of color caused the different evaluation of harmony of colors by both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Key words: harmony, coloration, tone, korean dress, perception; 조화, 배색, 톤, 한복, 지각반응

I. 서 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 가지 색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들은 하나의 색만 보는 경우는 드물고 다수의 색으로 둘러싸인 곳에

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복수의 색을 통일하여 하나로 집적시켜 평가하려는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접한 두 색상이 색상차이를 나타낼 때 이러한 행동패턴이 일어나게 된다. 즉 형태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각각의 색을 분리시켜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하게 되

어 두 가지 색의 조화 정도를 느끼게 된다. 어떠한 색에 절대적으로 맞는 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울리기 쉬운 색들, 어울리기 힘든 색들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2색의 조화는 배색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색채조화는 배색의 최종관건이 되므로 배색에서 조화감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색상이나 명도, 채도, 면적 등의 요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포함한 어떤 법칙을 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사람들은 특정한 색채를 단독으로 볼 때는 좋아해도 다른 색과 배합할 경우에는 싫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 줄 색채배색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다수의 배색을 제시하여 사람들에게 조화정도를 평가하게 할 경우 자신이 느끼는 조화의 정도 즉 조화 혹은 부조화라고 판단하는 배색이 있기 마련이다. 細野 등(1955)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배색의 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문장르별로 보면 공업디자이너나 건축디자이너는 조화의 수가 적었고 의복디자이너나 미술교육자 쪽은 조화의 수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近江 外, 1972). 이와 같이 조화감 평가에서는 상당한 개인차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배색조화에 대한 판단은 문화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대략 일본의 데이터에서는 동등, 유사 등의 배색이, 유럽의 데이터에서는 대조색상의 배색이 높게 평가되는 예가 많다(권민, 1991:228). 이경희(1990)도 한국과 일본의 전통색 분포특성에서 고유특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복에서는 색조화방법상의 특징으로 자연현상과 조화를 이루는 대비조화, 유사조화, 무채색조화 등이 있다(금기숙, 1990; 최세환·김민자, 1993). 특히 한국인은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 초록저고리에 빨강치마와 같은 배색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우리 고유의 전통배색이다. 이은영(1996)은 세계화된 미래사회에서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우려난 미적표현은 우리만의 독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한 독특함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보편성 있는 미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국제 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배색방법은 타 문화권에서도 공감될 수 있는가? 즉 한국인의 전통

적인 배색방법은 한국 고유의 것인가? 아니면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보편성 즉 공통성이 있는가? 대체로 국내에서는 의복의 색이나 색상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 및 인상형성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강혜원·고애란, 1991; 박화순, 1992; 차미승, 1992; 이현화·박찬부, 1997; 이혜숙·김재숙, 1998)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복 배색의 조화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수량화과정을 통해 객관화할 필요가 있고 한복배색의 색상과 톤에 의한 조화판단에서 개인 및 문화간의 차이가 큰 배색과 그 차이가 작은 배색이 존재한다면 이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배색된 색상조화에 대한 교차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복배색에서의 조화감 연구는 한국과 미국 여대생이 느끼는 조화영역과 동시에 부조화의 영역을 밝힘으로서 배색 조화의 이론정립과 국제화시대에 우리의 전통적인 배색을 평가하는 외국인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복에서 치마, 저고리 색의 톤 인 톤 배색에 따른 조화의 정도를 밝힌다.

2) 한복배색의 조화정도에 따른 한·미 문화간의 차이를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배색조화이론

배색은 하나의 색으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며 2개 이상의 부분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 조화이다. 조화 즉 harmony의 어원은 '통합' '조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hamonia에서 유래된 것이다(권민, 1991). 우리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색이 존재하므로 모든 색은 항상 다른 색과 같이 있게 된다. 특히 두 색이 조합되어 있을 때 각각의 단색이 주는 느낌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되어 두 가지 색의 조합은 하나로 조직화되어 지각된다.

색채조화이론은 초기에 하모니이론으로 배색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나 19c에 들어서면서 철학적 사색과 단순한 개인적 경험의 차원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화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조화이론은 한결같이 색입체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20세기 초의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Chevreul은 색의 3축성에 근원을 둔 유사성과 대비성의 조화에 대한 원리를 세웠다. Ostwald는 조화를 질서라고 보고 색상, 명도, 채도의 질서적인 배열에 따라서 선택되는 색의 조화를 주창해서 Chevreul의 조화론을 더욱 강조하였다. Ostwald 이론이 혼색에 의한 질서라는 보다 물리적인 규칙에 충실하여 구성된 것에 비해 Moon-Spencer 이론은 조화판단이라는 심리규칙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색채에 대한 판단에는 각종 요인이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가치(aesthetic merit) 판단이 있어 그것이 쾌-불쾌를 구분 짓는다고 보고 조화-부조화를 2분법으로 범주화하지 않고, 양극의 연속척도로 간주하고 있다(권민, 1991). 그들의 이론에서 쾌한 배색이 되기 위해서는 2색의 간격이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여러 색이 배색되어 유쾌한 감정을 줄 때는 조화라 하고 불쾌한 감정을 줄 때 부조화라고 하였다. 따라서 색상에서 모호한 관계가 2색 조화에서 부조화의 원인이 된다(김수석, 1993). 색상과 마찬가지로 명도, 채도에 있어서도 관계가 애매할 때 부조화를 이루게 된다. 조화에는 동일조화(harmony of identity), 유사조화(harmony of similarity) 대비조화(harmony of contrast) 등이 있고 부조화에는 제1부조화(first ambiguity), 제2부조화(second ambiguity), 현란(glare) 등이 있다(유송옥, 1996:203).

Arnheim(1954)은 색채과학의 중심적인 과제인 표색계의 연구목적의 하나는 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있으며 또 하나는 어떤 색이 어떤 색과 조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배색의 경우에 각 구성색 단독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별개의 효과를 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안병옥은 조화의 본질을 다양 속의 통일, 통일 속의 다양이라고 보고 조화는 곧 미의 원리요 생명의

원리라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조화에는 통일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질서를 느낄 때 조화라고 말할 수 있다(하용득, 1986). Judd는 색공간 상에서 질서있는 관계에 있는 색채끼리, 또는 서로 구성색 사이에 공통성이나 유사성을 갖는 것끼리 조화를 이루며 애매하지 않는 배색과 관찰자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배색도 서로 조화되게 느낀다고 하였다(本明寬, 1963). 그렇다면 어떤 색이 어떤 색과 배색이 잘 되고 어떤 색과는 배색이 잘 안 되는가? 동일한 색상도 동양인과 서양인과는 아주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같은 민족이라도 시대, 지방, 교육정도에 따라,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된다. 개인의 경우도 장소, 상황, 계절, 옷의 형태, 질감, 개인의 피부색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유송옥, 1996:210). 따라서 일정하게 어떠한 배색이 가장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조화방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조화판단에는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동일문화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복과 색조화

의복 디자인에서 색채연구는 형태, 재질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자 壁谷久代(1980), 上野青一郎(1980)등은 의복디자인에 있어서 색채가 형태나 구성선, 패턴보다 의복의 이미지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현화, 박찬부(1997)는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는 색상조화가 중심특질로 작용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한복은 디자인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색상과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한복에서는 단색으로 사용될 때보다 두 색 이상이 사용될 때가 더 많아 배색을 통한 조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색상의 조화를 크게 보면 유사조화(related color harmony)와 대비조화(contrasting color harmony)로 나누어진다. 유사조화는 유사한 색상끼리의 조화이며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화되며 배색효과가 크다. 대비조화는 서로 반대되는 느

김을 주거나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들을 대비시켜서 얻어지는 조화로 보색인 두 색을 나란히 놓을 때에 2색들은 상호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립관계가 심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그러한 대립감이 조화의 한 원리가 되므로 색채대비는 배색의 기초가 된다(박은주, 1999).

배색의 실마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조화가 되려면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어울리는가, 서로 비슷한가 하는 것이다. 즉 의복의 색에는 나름대로 서로간에 상대성이라는 게 있게 된다. 특히 톤 인 톤 배색에서는 상·하의의 톤이 같기 때문에 적당한 색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배색은 3가지 속성 즉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해서 조작되어져 조화되지만, 일반적으로 색상에 중점을 두고 조화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김수석, 1993). 특히 복식에서 보색조화는 두 가지 색상의 면적이 뚜렷이 차이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상이 의복전체의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하는 주된 색채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복의 빨강치마와 초록 저고리의 조화이다. 보색조화에서는 이미 색상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도와 채도는 통일되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은영, 1992:123). Guilford는 사람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색들의 배합이나 서로 반대되는 색 즉 보색들의 배합을 좋아한다고 하였고 Walton과 Morison도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호하는 배색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의 배색을 포함시켰다(김화중, 1991). 금기숙(1990)은 조선복식의 색조화 방법상의 특징은 보색 대비보다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유로운 배색에 의한 색채조화는 2색배색을 기초로 유사와 대립의 원리를 다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색배색의 조화 실험으로부터 색상간격과 조화감을 연구한 Granger(1955)는 색상이 멀어질수록 조화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細野등(1955)은 1328종의 배색시료를 바탕으로 가장 조화로운 것과 가장 조화롭지 못한 것에 대해 판정한 결과 색상 차가 적을수록 그 조화는 명도차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며 색상차가 클 때에는 비교적 명도차에 의한 영향이 적다고 하였다(김수석,

1993). 또한 細野 등(1995)은 전문 디자이너와 화가 347명에게 529의 2색배색을 제시하고 조화, 부조화, 불명의 3단계로 회답을 구한 결과 그 본포가 조화를 이루는 배색이 10종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으로부터 441종의 배색에서 조화를 느낀다는 사람까지 그 본포가 상당히 광범위하였다. 한편 猪熊玄一郎과 殿中青坪은 조화의 수가 적었고 武井武雄, 西田信一쪽에서는 조화의 수가 많은 것(近江源太郎, 1972)으로 보고하여 조화판단에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조화판단을 할 경우에는 개인차를 확률이 높은 배색과 개인차가 적은 배색이 존재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대략 동등. 유사배색 쪽이 대비배색보다 개인차는 적다고 할 수 있다(近江源太郎, 1970).

색채의 경우는 배색에 대한 쾌함-불쾌 판단과 구성 각색에 대한 쾌함-불쾌 판단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논의되었으며 Granger(1955)는 배색에 대한 좋고 나쁨이 판단의 약 70%가 구성각색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 얻어진 합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었다. Hogg(1969)도 같은 방식으로 배색의 감정효과를 구성각색의 감정효과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복식의 색조합에 따른 이미지를 연구한 이혜숙 김재숙(1998)은 저고리 색은 치마 색과 상호작용효과가 없어 각기 독립적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상하 배색이 상하동색보다 시각적으로 강하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상에서 배색의 조화정도는 구성 색의 선택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성색과 톤에 따른 조화판단에서 조화영역이나 부조화영역이 존재하고 여기에 개인이나 문화간의 차이가 있다면 한복배색의 조화에 대한 문화간의 상대적 차이의 경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복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분척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자극물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선행연구와 잡지 등에 실린 한복사진을 참고로 하여 치마, 저고리의 전통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그림1).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이며 선행연구(이현화·박찬부, 1998)에서 사용한 바 있는 배색구성으로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은 치마색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 색상은 다르게 하였으며 자수나 문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한복의 색상은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속성인 온도감을 기준으로 빨강, 주황, 노랑을 난색으로, 초록, 파랑, 보라를 한색으로 구분한 분류기준(이은영, 1992)에 근거하여 치마색을 유채색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색상으로 선정하였고 여기에 무채색을 포함시켰다. 저고리색상의 수를 치마색상의 수와 동일하게 하고 톤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조합하게 되면 치마, 저고리의 배색 즉 상하배색의 수가 너무 많아 조사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저고리 색상은 한국 고유의 전통배색을 참고로 빨강 치마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배색이 되는 노랑 저고리, 대비배색이 되는 초록 저고리로 정하고 동색배색으로 빨강 저고리를 추가하여 저고리 색상을 모두 3가지색으로 한정시켰다.



[그림 1] 한복 자극물

이렇게 선정된 색상은 순색인 비비드와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으로 조작한 후 준거집단(교수·대학원생포함)의 의견을 참고로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의 색상에 준하여 최종적으로 색상을 선정하였다.

2) 자극물 제작

한복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4D-BOX 6800 Zun system)에 scanning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을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프린트된 자극물의 색상을 보고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평가된 것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 색상의 면셀값은 <표 1>과 같다. 최종 자극물은 무채색을 포함한 28가지(7색·4톤) 치마색과 12가지(3색·4톤) 저고리색을 조합하여 만든 총 336(28×12)개의 실험배색으로 선정·조사되었다. 이 중 본 연구(1보)에서는 치마색 6가지와 저고리색 3가지 색상을 각각 4가지 톤인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톤인 톤 배색으로 구성된 총 72개(6색·3색·4톤=72)의 자극물만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3) 자극물의 평가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한복의 저고리색(3색), 치마색(7색), 그리고 4가지 톤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인의 조합에 의해 총 336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여 종속변인인 한복 조화감을 평가하게 하였다. 한복배색의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미국여대생의 경우 총 336개의 자극물을 20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16-17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 수는 실험조합별로 10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었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1개의 무선조합에 배치되어 16-17장의 자극물을 평가하였으므로 피험자내 설계와 피험자간 설계가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한국여대생의 경우 피험자내 설계에 의해 한 피험자가 모든 자극물(336)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피험자가 동시에 모든 자극물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한번에 16-17장의 자극물을 제시하고 20회(1주: 2-3회)에 걸쳐 색상배색

〈표 1〉 치마, 저고리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톤					색상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red) 5R	v/c	4/14	8/6	5/6	2/6	초록(green) 5G	v/c	5/10	8/4	6/4	2/4
주황(orange) 5YR	v/c	6/14	9/2	5/4	2/4	파랑(Blue) 5B	v/c	5/10	8/4	5/4	2/4
노랑(yellow) 5Y	v/c	8.5/14	8.5/6	7/6	3/4	보라(purple) 5P	v/c	4/12	8/4	5/4	2/4

v/c : 명도/채도

에 대한 조화감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 16-17장은 색상과 톤에 의한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4) 조화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속의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화되는-조화되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왼쪽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에 배치된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생활과학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uman Ecology)에서 consumer science와 environment textile and design을 전공하는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1998. 11월~1999.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여대생은 경상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중인 여대생 83명을 대상으로 1999. 10월 초- 12월 초 사이에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구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한복의 배색은 빨강, 노랑, 초록의 3가지 저고리색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치마색을 각기 조합시켰다. 조합된 치마·저고리색 즉 상하배색의 톤을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으로 각각 동일하게 한 후 한·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조화감을 평가시켜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비비드 톤의 상하배색에 대한 조화감 비교

비비드 톤의 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와 비비드 톤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치마를 조합하여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비비드 톤의 저고리 색과 치마색의 조화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빨강 저고리와 빨강 및 노랑 치마, 노랑저고리와 초록치마, 초록저고리와 초록 및 보라 치마로 나타났다. 빨강 치마와 저고리 색상을 빨강, 노랑, 초록으로 달리 조합했을 때 저고리 색상에 따른 조화감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빨강 치마·저고리의 동색배색일 경우 한국여대생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미국여대생은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문화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양국 여대생 모두 빨강 치마에 노랑이나 초록 저고리는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유사한 공통성이 높은 배색과 함께 이질성이 높은 배색도 조화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복에서 전통배색으로 알려져 있는 노랑 저고리와 빨강 치마, 초록 저고리와 빨강 치마라

〈표 2〉 한국 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A: 미국, K: 한국)

저고리	치마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A	K	t-값	A	K	t-값	A	K	t-값	A	K	t-값
빨강(red)	빨강	0.800	0.317	0.0000***	0.867	0.293	0.0001***	0.883	0.216	0.0000***	0.550	0.256	0.0037**
	주황	0.633	0.641	0.9148	0.883	0.318	0.0001***	0.317	0.487	0.0754	0.833	0.263	0.0000***
	노랑	0.733	0.602	0.0089**	0.333	0.337	0.9670	0.317	0.489	0.0707	0.483	0.392	0.3449
	초록	0.367	0.383	0.8747	0.467	0.279	0.0340*	0.150	0.341	0.0151*	0.350	0.278	0.4018
	파랑	0.283	0.303	0.8253	0.433	0.312	0.1723	0.367	0.380	0.8890	0.483	0.339	0.1157
노랑(yellow)	보라	0.283	0.258	0.7375	0.533	0.339	0.1857	0.300	0.249	0.5062	0.500	0.387	0.2465
	빨강	0.583	0.712	0.1444	0.533	0.425	0.2934	0.267	0.603	0.0007***	0.409	0.517	0.2646
	주황	0.500	0.516	0.8824	0.383	0.373	0.9130	0.400	0.483	0.3346	0.567	0.353	0.0412*
	노랑	0.400	0.353	0.6357	0.617	0.253	0.0002***	0.450	0.272	0.0599	0.750	0.267	0.0000***
	초록	0.233	0.439	0.0231*	0.517	0.361	0.0700	0.433	0.508	0.4013	0.433	0.409	0.8033
초록(green)	파랑	0.450	0.369	0.3610	0.667	0.300	0.0001***	0.400	0.510	0.2316	0.633	0.446	0.0560
	보라	0.467	0.459	0.9325	0.500	0.393	0.3109	0.400	0.436	0.6804	0.633	0.345	0.0071**
	빨강	0.500	0.536	0.7171	0.317	0.361	0.6431	0.450	0.483	0.7142	0.200	0.280	0.3415
	주황	0.250	0.339	0.2697	0.400	0.349	0.5779	0.417	0.326	0.2700	0.317	0.407	0.3847
	노랑	0.333	0.431	0.3221	0.633	0.304	0.0004***	0.267	0.465	0.0216*	0.483	0.484	0.9937
초록(green)	초록	0.733	0.300	0.0000***	0.867	0.289	0.0000***	0.917	0.300	0.0001***	0.850	0.294	0.0000***
	파랑	0.300	0.325	0.7634	0.633	0.310	0.0340*	0.733	0.502	0.0152*	0.550	0.337	0.0350*
	보라	0.483	0.266	0.0086**	0.367	0.300	0.4684	0.750	0.417	0.0003***	0.600	0.371	0.0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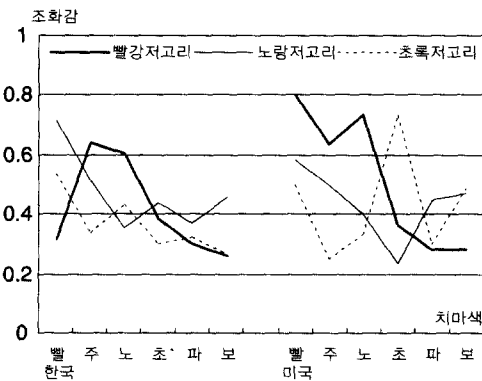
*p<.05 **p<.01 ***p<.001 조화>0.5>부조화

는 고유 배색과 일치하며 양국 여대생 모두 초록 저고리와 빨강 치마의 대비배색보다 노랑 저고리와 빨강 치마의 유사배색 일 때 보다 잘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이들 배색에 대한 지각 반응에서는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된 보편성을 나타내었다.

저고리 색상별로 치마색과의 조화를 살펴보면 양

국여대생 모두 빨강 저고리는 유사배색인 주황이나 노랑 치마와 조화를 이루었다. 이는 빨강 저고리와 노랑치마가 매력적이라고 한 선행연구(이혜숙·김재숙, 1998)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빨강 저고리와 노랑치마와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더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노랑 저고리와 빨강 치마의 배색은 한국여대생이 더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여 동일한 색의 조합임에도 다소 상반되는 평가를 하였다. 이는 빨강 치마와 노랑 저고리라는 전통적인 배색방법이 한국여대생에게 익숙한 배색으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록, 파랑, 보라 등 한색과 배색될 경우는 양국여대생 모두에게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랑 저고리의 경우는 노랑 치마와의 동색배색일 때 한·미 여대생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색상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로 생각되며 노랑의 부정적인 평가이미지가 상하배색에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본 이혜숙(1998)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한국여대생은 한색계인 파랑 치마와, 미국여대



[그림 2] 비비드 톤 배색의 조화감 비교

생은 초록 치마와 조합될 때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국여대생 모두 노랑 저고리는 빨강이나 주황 치마와의 유사배색에서 잘 조화되고 그 다음으로 대비배색인 보라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초록 저고리의 경우 난색인 빨강 치마와 배색될 때 양국여대생 모두 잘 조화된다고 지각한 반면에 같은 보색조합인 빨강 저고리와 초록 치마의 조화감은 낮게 평가하여 대조적이었다. 이 두 배색이 모두 빨강과 초록이라는 동일한 색상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여대생 모두 조화의 정도를 다르게 지각한 것은 조합되는 색의 구성 뿐 만 아니라 치마·저고리에 사용되는 두 색상의 면적 즉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주된 색상에서 오는 차이로 빨강 치마의 매력적인 이미지보다 초록 치마의 매력 없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지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복식에서 보색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색상의 면적이 뚜렷이 차이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한복의 빨강 치마와 초록 저고리의 조화라고 한 이은영(1992)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또한 양국여대생은 초록 저고리와 주황 및 파랑 치마와의 배색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한국여대생은 초록과의 동색배색에서는 그 조화감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초록의 상하 동색배색에 대한 지각반응에서는 문화간에 상반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초록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의 배색에

서 미국여대생은 어느 정도 조화된다고 지각한 반면에 한국 여대생은 전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차이를 보였다.

2. 라이트 톤의 상하배색에 대한 조화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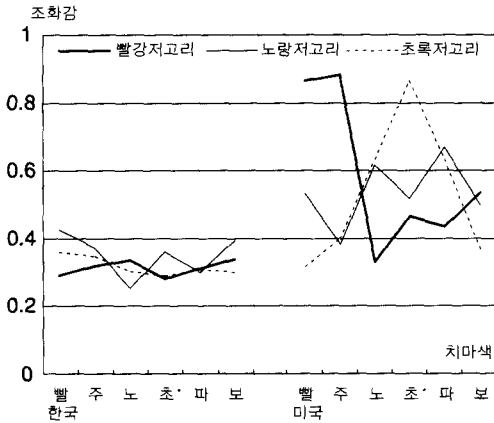
라이트 톤의 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를 라이트 톤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치마를 조합하여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2>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라이트 톤의 저고리와 치마색의 조합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빨강 저고리와 빨강·주황·초록 치마, 노랑 저고리와 노랑·파랑 치마, 초록 저고리와 노랑·초록·파랑 치마로 나타났다. 한국여대생들은 라이트 치마·저고리의 배색에 따른 조화감을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대체로 높다고 평가하였다.

라이트 톤의 빨강 치마와 저고리색상을 빨강, 노랑, 초록으로 달리 조합했을 때 저고리 색상에 따른 조화감을 한국 여대생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동색 배색인 빨강, 노랑 저고리에서 높게 평가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저고리 색상별로 보면 라이트 톤의 빨강 저고리와 같은 톤의 난색인 빨강 및 주황 치마를 배색시킬 경우 한국여대생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데 반하여 미국여대생은 주황과의 유사배색이나 빨강의 동색배색이 가장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에 보색인 보라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라이트 톤의 빨강 저고리와 초록 치마의 배색에서는 한국여대생보다 미국여대생이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라이트 빨강 저고리가 난색인 노랑 치마와 조합될 때는 양국여대생 모두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빨강 저고리와 노랑 치마의 배색이 비비드 톤에서는 매우 조화된다고 지각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어 동일한 배색이라도 톤의 변화에 따라 조화정도는 크게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라이트 톤의 노랑 저고리는 미국여대생의 경우 주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라이트 톤의 어떤 치마색과 짜 맞추어도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동색인 노랑이나 파랑의 치마색과 보다 잘



[그림 3] 라이트 톤 배색의 조화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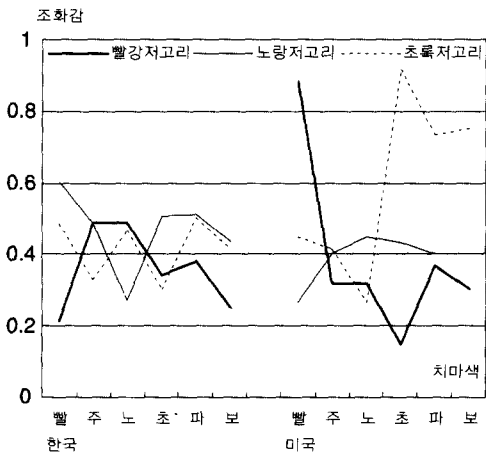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라이트 톤의 노랑 저고리는 같은 톤의 빨강 치마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동일한 톤이지만 저고리를 빨강으로 치마를 노랑으로 바꾸었을 때는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노랑과 빨강이라는 동일한 색상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된 색상의 면적이나 톤의 영향이 조화를 결정짓는데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된 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저고리색이 라이트 초록의 경우 미국여대생은 같은 톤의 빨강이나 보라와는 잘 조화되지 않고 초록, 노랑, 파랑의 치마색과 잘 조화되며 특히 초록 치마와의 동색배색은 조화가 매우 잘 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대체로 미국 여대생들은 라이트의 빨강, 초록, 노랑 저고리는 각각 동색의 치마와 배색될 때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라이트 톤 색상배색에서의 조화감 평가는 한·미여대생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덜 톤의 상하배색에 대한 조화감 비교

덜 톤의 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와 덜 톤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치마를 조합하여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2>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덜 톤 배색의 조화감 비교

덜 톤의 저고리와 치마의 조화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빨강 저고리와 빨강 및 초록 치마, 노랑 저고리와 빨강 치마, 초록 저고리와 노랑 및 초록·파랑·보라 치마로 나타났다.

덜 톤의 빨강 치마에 빨강, 노랑, 초록의 저고리 색상을 각각 달리 조합했을 경우 한국여대생은 비비드 톤에서와 마찬가지로 빨강 저고리의 동색배색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노랑 저고리와는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동색배색보다는 유사나 대비배색의 조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빨강 저고리와의 동색배색을 가장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초록 저고리와의 대비배색을 노랑 저고리와의 유사배색보다 더 조화되는 배색으로 평가하였다.

저고리 색상별로 치마색과의 조화를 살펴보면 덜 톤의 빨강 저고리를 덜 톤의 다른 치마색과 배색시켰을 때 한국여대생의 경우 난색인 주황과 노랑과는 비교적 조화를 이루지만 한색인 초록, 파랑, 보라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빨강색의 동색배색을 제외하고는 어떤 치마색과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덜 톤의 초록 치마와의 대비배색에서 양국여대생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미국여대생은 더 낮게 평가하였다.

덜 톤의 노랑 저고리 경우 한국여대생은 같은 톤의 빨강, 초록, 파랑의 치마색과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한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어떤 치마색과도 조화되지 않아 다소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노랑치마, 저고리의 동색배색에 대한 조화감은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 보다 더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덜 톤의 초록 저고리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같은 톤의 파랑 치마와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비비드 및 라이트 톤에서 초록 저고리와 파랑 치마가 부조화를 이루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록 저고리와 노랑 치마의 배색은 미국여대생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초록과의 동색배색은 물론 덜 톤의 파랑이나 보라 치마와 조화가 매우 잘 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대체로 동일한 색상의 배색구성에서도 톤에 따라 두 문화권은 조화감 평가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4. 다크 톤의 상하배색에 대한 조화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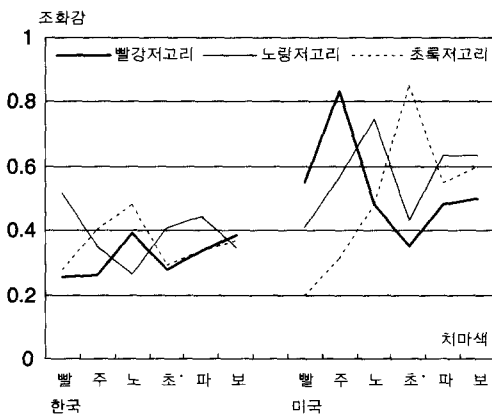
다크 톤의 저고리색 빨강, 노랑, 초록과 동일한 톤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치마색을 각각 배색시켜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2>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다크 톤의 저고리와 치마색의 조화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빨강 저고리와 빨강·주황 치마, 노랑 저고리와 주황 및 노랑·보라 치마, 초록 저고리와 초록·파랑·보라 치마로 나타났다.

다크 톤의 빨강 치마에 같은 톤의 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를 조합했을 때 한국여대생은 노랑 저고리와 유사배색을, 미국여대생은 빨강 저고리와 유사배색을 잘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보색인 초록 저고리와 배색될 때는 양국여대생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저고리 색상별로 치마색과의 조화를 살펴 보면 미국여대생의 경우 다크 톤의 빨강 저고리는 빨강, 주황, 보라의 치마색과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유사배색인 주황 치마와 가장 잘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다크 빨강의 동색배색인 경우 비비드나 라이트, 덜 톤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조화의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크 톤의 노랑 저고리의 경우 한국여대생은 빨강 치마를 제외한 어떤 치마색과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노랑의 동색배색을 매우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주황,



[그림 5] 다크 톤 배색의 조화감 비교

파랑, 보라 치마와의 배색도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노랑색의 동색배색을 한국여대생은 톤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지각한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비비드나 덜 톤과는 달리 라이트와 다크 톤에서는 매우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톤에 따른 지각반응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의 초록 저고리는 양국여대생 모두 같은 톤의 빨강, 주황, 노랑치마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치마·저고리가 다크 톤인 초록으로 동색배색될 때 미국여대생은 한국여대생과는 대조적으로 조화가 매우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색인 초록, 파랑, 보라와의 배색에서 조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여 문화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복배색에서 4가지 톤별로 3가지 저고리색과 6가지 치마색을 조합하여 그 조화감의 정도를 평가하고 톤 인 톤 배색조화에 대한 지각반응에서 이들 문화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빨강, 노랑, 초록색을 각기 치마·저고리에 동색으로 배색할 경우 이들 색상의 4가지 톤 즉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의 배색을 한국여대생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노랑색을 제외한 초록, 빨강의 동색배색을 아주 잘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특히 초록의 경우 모든 톤에서 가장 높게 지각하여 동색배색의 조화감 평가는 문화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 반응에서 미국여대생이 동색배색을 조화롭다고 지각한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의복형태인 suit의 개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는 앞으로 한복이 아닌 suit의 배색에 대한 지각반응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미여대생들은 한복의 고유배색인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의 유사배색이나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대비배색을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여 한국의 전통배색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조화로운 배색이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적인 배색방법이 독특한 우리만의 미적 표현이 아니라 보편적인 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색상의 조합도 톤을 다르게 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비비드톤의 배색에서와는 달리 라이트, 덜, 다크의 톤에서는 차이를 보여 톤에 따른 지각반응은 문화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각하는 조화감은 동일 문화권에서 어느정도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과 색상에 따른 두 문화권의 지각반응을 보면 총 72개의 톤 인 톤배색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의 수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10개로 나타나 조화를 이루는 배색의 분포범위가 좁은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31개의 다양한 색상과 톤의 배색을 조화롭다고 지각하여 배색의 분포범위가 한국여대생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개인의 일상의 경험 이 조화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양국여대생에게 한복배색 자극물의 조화감을 평가하게 한 결과 조화 또는 부조화라고 지각하는 배색이 구분됨으로써 배색의 조화정도는 구성색의 선택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된다고 밝힌 Granger(1955)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전반적으로 구성색 사이에 공통성이나 유사성이 높은 배색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는 것은 구성색 간의 거리 요인이나 배색되는 색채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색의 조합도 톤에 따라, 상·하 면적에 따라 차이를 보여 톤이나 면적 또한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배색을 2색배색으로 하고 상·하의 톤을 동일하게 한 톤 인 톤 배색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색상차에 의한 배색이 조화를 이루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문화별로 그 차이를 알아 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조화판단에는 색상 외에 명도나 채도는 물론 면적이나 디자인, 질감, 용도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조화판단의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어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조화감 평가시 평가자의 범위가 여대생의 일부라는 점과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해원·고애란(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권민 역(1991). 조형심리. 서울:동국출판사.
- 금기숙(1990). 한국복식미의 탐구. 복식, 14, 167-184.
- 김수석 역(1993). 조형심리입문. 서울: 지구문화사.
- 김화중 역(1991). 색채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 박은주(199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 박화순(1992). 의복의 배색유형에 따른 지각반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8집, 79-90.
- 이경희(1990). 전통색에 대한 한일 대학생의 색채기호의 비교.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9, 163-173.
- 이은영(1996). 미래사회의 의류학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의-.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발표회, 1-11.
- 이은영(1992). 복식의장학. 교문사.
- 이현화·박찬부(1997).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1)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313-336.
- 이혜숙·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1) -여자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이혜숙·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 -여자 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1052-1059.
- 유송옥(1996). 복식의장학. 수학사.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세환·김민자(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미 - 1980년대 이후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1), 103-117.
- 하용득(1986).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 한국표준색표집.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 上野青一郎(1980). 衣服の嗜好に關する統計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7), 42-48.

- 近江源太郎(1970). 色彩調和空間의 研究. 日本色彩學會 (編), 新編色彩科學 handbook, 東京大學出版會.
- 近江原太郎・兒玉晃・細野尙志(1972). 美術家による 調和感 評價の 類型化. 日本色彩學會 第2回大會 講演 論文集.
- 壁谷久代・加藤雪枝・檜山藤子(1980). 被服に 對する 色 彩と 圖形の 知覺に 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8), 35-42.
- 細野尙志. 兒玉晃. 高木愛子(1955), カラーハーモニーの 研究 3, 色彩研究, 2(1), 45-47
- 細野尙志. 兒玉晃. 霜村美子(1958). 調和に 對する 志向の 個人差と 類型に ついて. 色彩研究, 5(2), 5-8.
- Arnheim R.(1954), 波多野完治. 關計夫譯(1963), 美術と 視覺. 美術出版社, 189.
- Budd, D.B & Wyszecki, G. 本明寬 監譯(1963). 応用色 彩學. タイアモンド社.
- Granger, G. W(1955). The Prediction Preference for Color Harmony. *J. gen. Psychol*, 52, 213-222.
- Hogg, J.(1969). The Prediction of Semantic Differential ratings of Color Combinations. *J. gen. Psychol*, 80, 141-152.